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 John 6:67-69

말씀 FOCUS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을 좇는 겉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속사람이 공존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일시적인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는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 나의 육신과 타협하고, 습관적인 합리화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참된 성도는 어렵고 또는 외롭거나 지루한 일상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 UNDERSTAND

➤ 그리스도를 닮는 구체적인 삶을 위해

1. ()을 키우라. (63, 65)

So what?

2. 영생의 ()을 따르라. (68, 시 139:7, 요 21:11, 18)

말씀 APPLY & SHARE

1. 당신은 일상에서 겉사람(육신)의 만족과 속사람(영)의 성장 중 무엇을 더 우선시 하고 있나요?
2.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영적 감각과 성장을 위해 매일 어떤 구체적인 노력 (말씀 묵상, 기도 등)을 하고 있나요?
3. 일터나 가정에서 힘든 상황이 올 때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는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